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2. 7.(금) 10:00 < 2.7.(금) 석간 > 배포 2025. 2. 6.(목)

한-체코 경제협력 전담반(TF) 회의 개최

- 한-체코 경제 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점검
- 체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의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월 7일(금) 한-체코 경제협력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방사청, 우주항공청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하였으며,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인 한-체코 협력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작년 9월 체코 현지에서 양국간 합의한 양해각서(MOU)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검토하였다. 산업부는 공급망에너지대화(SCED)를 통해 체코 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에너지 공동 연구개발(R&D) 확대와 미래차, 로봇, 배터리 분야 산업협력센터 구축을 논의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한-체코 국장급 경제 대화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기재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외교부·국토부), 철도협력 워킹그룹(국토부) 및 과학기술공동위원회(과기부) 등이 있으며, 각 사업별 진행동향도 함께 점검하였다.

안덕근 장관은 “체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 과제를 능동적·적극적으로 관리 및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현재까지 한-체코 경제협력과 관련한 유관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양국 정부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원활히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하였다.

올해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맞아 범정부 차원에서 체코와의 협력약정을 내실있게 이행하고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체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국 민간분야에서의 한-체코 투자 콘퍼런스, 수입박람회 추진 등 양국 기업의 상호진출과 비즈니스 활동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660)
		담당자	사무관	김진석 (044-203-566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